



KIA, 연속 위닝시리즈 원정서 상위권 ‘정조준’



18~20일 대전 한화전...21~23일 고척 키움전
주간 ERA 1위·타율 공동 2위...투타 상승세 기대

연속 위닝시리즈로 기세를 끌어올린 KIA타이거즈가 이번 주 원정 6연전에서 상위권 진입에 도전한다. KIA는 지난주 주중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위닝시리즈를 거둔 데 이어 주말 두산베어스와의 3연전에서 2승 1패를 기록했다. 2연속 위닝시리즈를 완성한 KIA는 56승 2무 48패 승률 0.538을 기록, 승패마진을 +8까지 늘리며 리그 4위 자리를 탈환했다.

순위 경쟁은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3위 LG트윈스와의 격차가 불과 1게임으로 좁혀져 사정권에 들어왔다. 반면 5위 두산과는 0.5게임차에 불과해 한두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KIA는 18일부터 20일까지 대전에서 6위 한화이글스와 맞붙는 뒤 21일부터 23일까지 고척에서 10위 키움히어로즈와 3연전을 치른

다. 중·하위권 팀을 차례로 상대하는 만큼 최근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3위 진입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일정이다.

무엇보다 타선의 흐름이 좋다. KIA는 지난주 6경기에서 팀 타율 0.276을 기록하며 리그 공동 2위에 올랐다. 폭염으로 인한 휴식기 이후 타격감 저하가 우려됐지만 주축 타자들이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공격력을 유지했다.

중심에는 베테랑 김선빈이 있다. 김선빈은 지난 주 6경기 22타수 8안타 4타점 타율 0.364로 맹타를 휘둘렀다. 후반기 들어 되찾은 정교한 타격감을 휴식기 이후에도 이어가며 타선의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카스트로의 방망이도 식지 않았다. 카스트로는 6경기 26타수 10안타 2타점 타율 0.385를 기록하며

공격을 주도했다. 시즌 초반 부진으로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지난 6월 18일 LG전 부상 복귀 이후 완전히 다른 타자로 변신했다. 후반기에도 꾸준한 생산력을 보여주며 KIA 타선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리드오프 박재현도 6경기 27타수 9안타 2홈런 타율 0.333으로 힘을 보탤다. 출루뿐만 아니라 장타까지 터뜨리며 공격의 물꼬를 텄고, 중요한 순간마다 홈런과 타점을 생산하며 승리에 앞장섰다.

여기에 트레이드로 합류한 하주석이 6경기 타율 0.333으로 꾸준한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고, 김도영도 시즌 35호 홈런을 터뜨리며 홈런 부문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주축 타자들이 동시에 타격감을 끌어올렸다는 점은 이번 원정 6연전을 앞둔 KIA에 가장 큰 호재다.

마운드는 타선보다 더 안정적이었다. KIA는 지난주 팀 평균자책점 3.33으로 리그 1위를 차지했다. 선발진이 긴 이닝을 책임진 데다 불펜까지 뒷문을 든든하게 지키면서 연속 위닝시리즈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아담 올러의 반응이 반갑다. 올러는 지난주 2경기에 선발 등판해 13이닝 동안 8피안타 2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틀어막고 2승을 챙겼다. 시즌 11승을 달성하며 다승 부문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후반기 들어 3경기 연속 흔들리며 우려를 낳겼지만 지난주 완벽한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시 에이스다운 모습을 되찾았다.

제임스 네일도 제 몫을 다했다. 네일은 지난 12일 삼성전에서 7이닝 6피안타 무사사구 7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토종 에이스 양현종 역시 견제함을 과시했다. 지난 15일 두산전에서 6이닝 6피안타 3사구 4탈삼진 1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막아내며 시즌 8승째를 수확했다.

불펜도 힘을 보탤다. 불펜으로 보직을 옮긴 뒤 데뷔 첫 세이브까지 기록한 이의리를 비롯해 전상현과 조상우 등이 경기 후반을 책임지면서 마운드의 안정감을 높였다. 선발과 불펜이 동시에 제 역할을 해주면서 KIA가 접전에서 승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KIA는 이런 흐름 속에서 주중 한화와 3연전을 치른다. 한화는 현재 48승 3무 53패 승률 0.475로 리그 6위에 자리하고 있다. 팀 타율은 0.275로 KIA(0.271)보다 높지만 팀 평균자책점은 4.83으로 KIA(4.42)에 뒤진다. 올 시즌 상대 전적은 6승 6패로 팽팽하다.

대전 한화생명مل파크에서 만난 한화는 18일 왕엔청을 선발로 내보낼 예정이다. 이에 KIA는 네일을 선발로 투입한다. 한화와의 3연전을 마친 뒤에는 고척으로 이동해 최하위 키움을 만난다. 키움은 팀 타율 0.246, 평균자책점 5.14로 투타 모두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KIA는 올 시즌 키움을 상대로 10승 2패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어 반드시 승수를 쌓아야 할 상대다.

투타 동반 상승세 속에 2연속 위닝시리즈까지 완성한 KIA에 이번 원정 6연전은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절호의 기회다. 3위 LG를 1게임차까지 추격한 KIA가 한화와 키움을 넘어 순위 경쟁에서 한 발 앞서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SOOP 수퍼스 주장 고예림 반등 다짐

창단 첫 시즌 담금질...“좋은 성적 비결 묻길”

박정아 이적...최고참·주장 중책
“부담 내려놓고 선수들과 소통”

“올해는 새로운 팀에서 어떻게 좋은 성적을 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

여자프로배구단 SOOP 수퍼스의 주장 고예림이 새로운 이름으로 맞는 첫 시즌을 앞두고 반등을 다짐했다. 팀 존속 여부를 걱정해야 했던 길고 불안한 비시즌을 지나 다시 코트에 서는 그는 이제 최고참이자 주장으로 SOOP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고예림에게 이번 비시즌은 어느 때보다 깊었다. 기존 팀이었던 페퍼저축은행이 A1페퍼스 구단 매각을 진행하면서 선수단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후 지난 5월 SOOP이 인수를 공식 발표했고, 6월 한국배구연맹(KOVO)의 승인을 받아 새롭게 출범했다.

연고지는 지난달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선수단은 4월 말에서 5월 초께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선수들의 불안감도 커졌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뭉쳤지만 시즌 준비 기간은 짧다. 다른 구단보다 본격적인 훈련 시작이 늦었던 만큼 빠르게 몸 상태와 조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고예림은 “다른 팀들이 한두 달 먼저 훈련에 들어가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선수들을 어떻게 컨트롤할지 많이 연구하신

다. 훈련 강도가 높지만 선수들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수단에도 변화가 생겼다. 트레이드 등을 통해 선수들이 오가면서 특히 아웃사이드 히터진의 경쟁 구도가 달라졌다.

고예림은 “함께했던 선수들이 떠난 것은 아쉽지만 프로에서는 매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새로 온 선수들이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떠난 선수들은 응원하면서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도 올 시즌은 명예 회복의 무대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서 나서지 못했던 그는 약 4개월의 휴식기를 거쳐 몸을 회복했다.

역할도 달라졌다. 박정아가 떠나면서 프로 생활 처음으로 팀 내 최고참이 됐다. 고예림은 “이제는 고민을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언니가 없다”며 “제가 제일 고참이 된 것은 처음이라 어렵다”고 털어놨다.

주장이라는 부담은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선수단을 이끌 생각이다.

그는 “너무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것 같다”며 “선수들과 잘 지내고 운동할 때 대화를 많이 하면서 언니가 해야 할 역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장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긴 기다림 끝에 맞는 SOOP의 첫 시즌, 목표는 결국 성적이다.

고예림은 “새로운 팀으로 시작하는 만큼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며 “지난 시즌에는 탈꼴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았다 했다. 이번에는 ‘새로운 팀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즌을 만들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송하종 기자



광주은행 직장운동경기부, 지역 체육인에 재능기부

나주 동호인 50명·장흥 유소년 30명
맞춤형 지도...생활체육·꿈나무 지원
배드민턴·양궁 선수단 강사로 나서

광주은행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과 스포츠 꿈나무를 대상으로 잇따라 재능기부에 나서며 지역 체육 발전에 힘을 보탤다.

광주은행 배드민턴팀과 양궁단은 최근 전남 나주와 장흥에서 동호인과 유소년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선수단이 직접 현장을 찾아 자신들이 쌓아온 경험과 전문 기술을 지역민에게 전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했다.

먼저 광주은행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난 7일 나주 종합스포츠파크에서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 약 50명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했다.

선수단은 평소 전문적인 지도를 접하기 어려운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호흡하며 종목별 기본기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전수했다. 엘리트 선수들이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직접 전달하면서 동호인들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종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재능기부 활동은 유소년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광주은행 배드민턴팀과 양궁단이 최근 전남 나주와 장흥에서 동호인과 유소년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은행 배드민턴팀

도 이어졌다. 광주은행 배드민턴팀과 양궁단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장흥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에서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유·청소년 종목 탐색 과정’에 참여했다. 초등학교 운동부 또는 학교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5~6학년 학생 가운데 약 30명이 함께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은행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재능기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배드민턴팀 홍지훈 감독과 박문선·김대환·양병건·신수현·윤보·나성수 선수, 양궁단 김성은 감독과 안산·최미선·곽진영·최예진 선수가 직접 강사로 나섰다.

선수들은 단순한 종목 체험을 넘어 장비 설정과 경기 규칙, 기본 자세와 기술 지도부터 실전 체험까지 함께하며 유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재능기부는 광주은행 직장운동경기부가 보유한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생활체육 동호인에게는 전문 선수의 지도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유소년에게는 종목 체험과 진로 탐색의 장을 마련하면서 지역 체육 저변 확대와 꿈나무 육성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

광주FC, 인천전 ‘골스튜디오 브랜드데이’ 개최

팬 참여형 이벤트·경품 마련...선착순 2000명 기념 부채

프로축구 광주FC가 공식 킷 파트너 골스튜디오와 함께 흥거기를 찾는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광주는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흥거기를 ‘골스튜디오 브랜드데이’로 꾸미고 다양한 팬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브랜드데이는 경기장을 찾은 팬들이 골스튜디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직접 경험하고 선수단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먼저 팬들이 선수단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직접 남길 수 있는 ‘GOAL WALL’을 운영한다. 팬들의

메시지를 한국에 모아 선수단과 팬이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는 응원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된다. 골스튜디오의 슬로건을 활용한 퐁트 이벤트와 ‘GOAL CHALLENGE’를 통해 헤드밴드와 버킷햇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경기장을 찾은 홈팬 선착순 2000명에게는 브랜드데이 기념 부채도 제공한다.

경기장 이벤트존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한 ‘SECRET SALE’을 운영한다. 현장을 방문한 팬들은 골스튜디오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행사는 23일부터 24일 오전 11시까지 이어진다.



하프타임에는 골스튜디오 브랜드와 관련된 전광판 퀴즈 이벤트가 진행된다. 정답자에게는 광주 선수단의 친필 사인이 담긴 홈·원정·셔드 유니폼을 경품으로 증정해 팬들의 참여 열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브랜드데이를 앞두고 골스튜디오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셔드 유니폼 출시와 연계한 사전 프로모션도 진행했다.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5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광주 선수단의 친필 사인이 담긴 2026시즌 셔드 유니폼과 브랜드데이 플레이어 에스코트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